

“엄정화·구혜선 불꽃튀는 연기 보게 될 것”

MBC 주말극 ‘당신은 너무합니다’

모창가수 소재 눈길…4일 첫 방

막장으로 질주했던 MBC TV 주말극 ‘불어라 미풍아’의 후속인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과연 기획의도대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온전히 그려낼 수 있을까.

일단 소재가 독특해 눈길을 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사는 스타 가수 유지나(엄정화 분)와 이름조차 우스꽝스러운 그녀의 모창가수 유지나(극 중 본명 정해당·구혜선)가 주인공이다.

유지나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가수 나훈아의 유명한 모창가수 나훈아를 떠올리게 한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나훈아의 인생에서 착안해 유지나와 유지나의 애증과 연인이 얽히고설킨 인생사를 그려낸 드라마다.

드라마를 연출한 백호민 PD는 지난 28일 제작 발표회에서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여자와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의 길을 못 가는 여자가 만나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15살 나이 차의 두 여배우를 투톱으로 내세운 점도 눈길을 끌며, 어떤 호흡을 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엄정화(49)에게 이번 작품은 tvN ‘마녀의 연애’ 이후 3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작이기도 하다.

엄정화는 구혜선에 대해 “혜선씨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 아름답고, 제가 표현 못 하는 다른 매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배우들 간에 기 싸움은 없는냐는 질문에 “기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눈으로 절 쳐다보면 녹는다”며 “혜선씨 눈을 보면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런다”고 웃었다.

화려한 외모와 자유로운 영혼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유지나는 오랜 세월 연에게 생활을 하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정평이 난 엄정화를 상당 부분 닮은 것 같다.

엄정화는 유지나의 캐릭터에 대해 “꿈을 이루기 위해 아픈 과거와 비밀을 숨기고 사는 여자인데 한 사람의 인생, 사랑, 욕망을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감성선전에 걸렸다가 극복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컴백하

면서 호흡이 긴 주말극을 선택한 데 대해 “제가 목이 안 좋았던 건 다 아실 텐데 이제 괜찮다”면서도 “목이 불편할 때는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새 앨범을 잘해냈고 이 긴 호흡의 드라마를 잘 마치면 그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작인 2015년 KBS 2TV ‘블러드’ 때와 달리 유부녀가 된 구혜선이 가족과 연인의 소중함을 아는 생계형 모창가수 유지나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표현해낼지가 관전 포인트다.

구혜선은 “엄정화 선배님은 학창시절부터 항상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역할이 생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고 나서 작품 하는 게 오랜만인데 연기는 참 어렵다”며 “체력도 많이 모자람을 느끼고, 하면 할수록 연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자연스러운 저로 살기보다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신은 너무합니다’는 남편 안재현이 출연하는 tvN 일요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3’과 방송 시간대가 겹치기도 한다. 과연 두 사람의 가정에서 리모컨은 어느 채널로 향할까.

이에 대해 구혜선은 “같은 시간에 방송하는지 몰랐다”며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집에 없을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

백 PD는 “지금 보름 정도 촬영했는데 엄정화와 구혜선은 참 완벽한 캐스팅”이라며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연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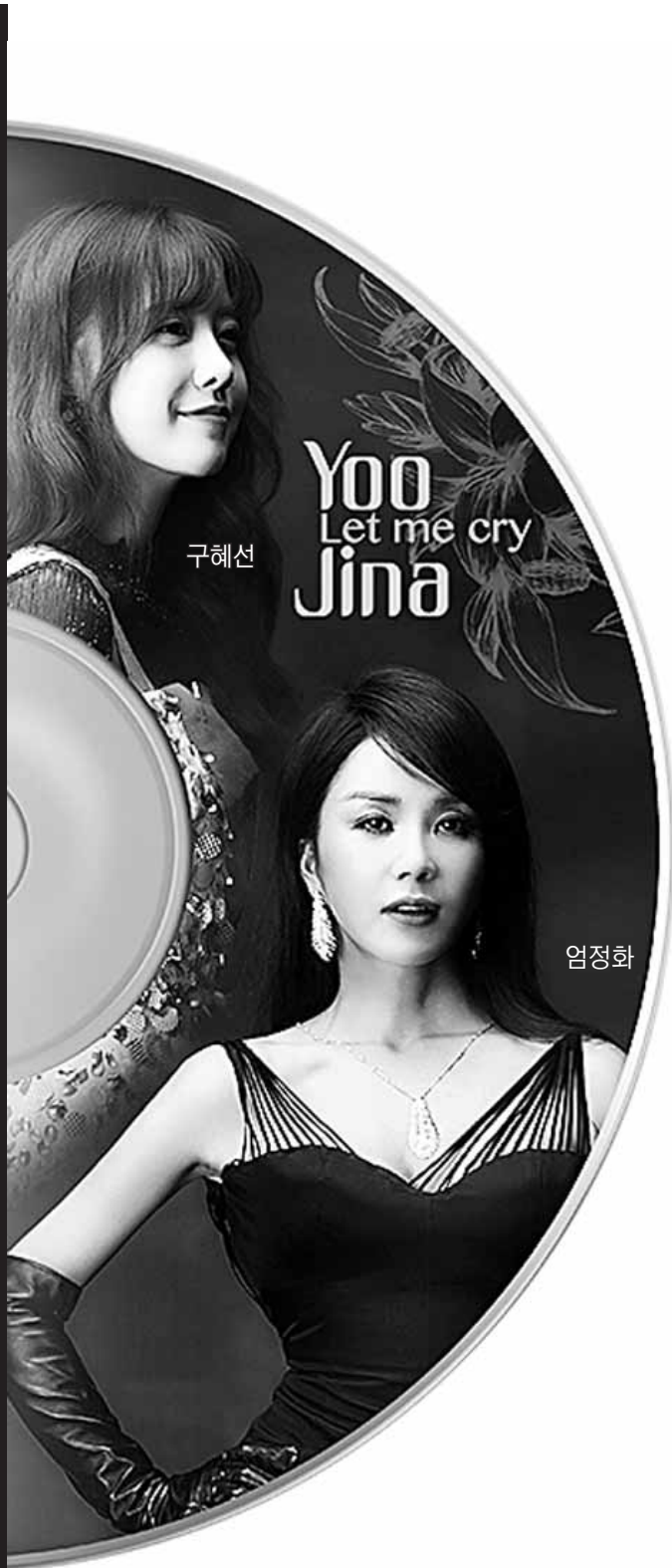
이 밖에 주말극인 만큼 강태오, 정겨운, 손태영, 재희, 전광렬, 정혜선, 강남길, 김보연 등 중년 배우들도 탄탄한 연기력으로 극을 든든하게 떠받칠 예정이다.

소재가 노래인 만큼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도 기대를 모은다.

이미 작곡가 주영훈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앨범에는 ‘렛 미 크라이’ ‘에메랄드’ ‘나는 누구’ 등 총 3곡의 신곡이 담겼으며 엄정화와 구혜선이 각기 다른 버전으로 녹음과 안무연습을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백 PD는 “특히 엄정화의 목소리에 압도당했다”고 전했다.

4일 밤 8시45분 첫 방송.



음원계 기상청 ‘벚꽃엔딩’

6년째 차트 부활 새 봄 알려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은 봄의 전령사다. 2012년 발매된 노래지만 봄의 문턱이면 어김없이 차트에서 부활해 새봄을 알린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멜론 차트 100위권에는 ‘벚꽃엔딩’이 88위로 올해 처음 재진입했다. 이렇게 다시 진입해 차트 정상까지 찍은 전력이 있어 3~4월 봄기운이 완연해질수록 순위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6년째 ‘벚꽃엔딩’이 차트에 진입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벚꽃엔딩’에는 ‘봄의 캐럴’, ‘벚꽃 연금’, ‘벚꽃 좀비’란 수식어가 붙었다. 이 곡은 공개 당시 ‘너의 이름은.’으로 유명한 일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 5cm’(2007)처럼 눈앞에 서정적인 벚꽃 풍경이 그려지는 노래로 소개됐다. ‘초속 5cm’는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를 뜻한다.

어쿠스틱 사운드에 실린 ‘봄바람 휘날리며/흔날리는 벚꽃 잎이/울려 퍼질 이 거리를/돌이 걸어요~’란 노랫말은 만개했던 벚꽃이 눈처럼 떨어지는 그림을 떠오르게 한다. 아직은 겨울 끝자락서 두드러지진 않지만, 봄바람을 타고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곡은 여럿이다.

지난해 3월에도 버스커버스커의 또 다른 곡 ‘꽃송이가’(2012)를 비롯해 하이포와 아이유의 듀엣곡 ‘봄 사람 벚꽃 말고’(2014), 로꼬와 유주가 부른 ‘우연히 봄’(2015) 등 과거 곡들이 차트에 재진입했다.

류정한·황인영 13일 결혼

“선물같은 사람” 자필편지로 결혼 소식 알려

뮤지컬 스타 류정한(46)과 배우 황인영(39)이 오는 13일 결혼한다.

황인영의 소속사 스타피그먼트 데인먼트는 1일 이같이 밝히며 “가족과 친지만 초대할 가운데 비공개로 조용하게 결혼식을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류정한과 황인영은 연에게 선배배로 알고 지내다 1년 정도 교제했다”고 덧붙였다.

류정한은 1997년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 ‘토니’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후 ‘오페라의 유령’ ‘지킬 앤 하이드’ ‘맨 오브 라만차’ ‘프랑켄슈타인’ 등 주요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약해온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다. 지난해에는 데뷔 20주년을 맞아 뮤지컬 제작자로 변신했다.

류정한은 이날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그저 배우로서의 길만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온 저에게 또 다른 사람 류정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선물 같은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다.

1999년 영화 ‘댄스댄스’로 데뷔한 황인영은 드라마 ‘경찰 특공대’ ‘파러’ ‘연개소문’ ‘대왕세종’ ‘무림학교’ 등에 출연했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이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3.1절 특집다큐 2부작 (시민과 독립운동) 50 팔도발상 스페셜	00 인간극장 스페셜	0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애니컬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특선다큐 (그래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5 가요무대(재)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재)	55 닥터 365
2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특집다큐 (3월 1일, 어느 가문의 선택)(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내일은 연제나 푸름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메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공사청립특집 8부작 UHD 유네스코 세계유산 55 감성애니 하루 2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3일간의 여행, 마법의 공간 칠석)	10 해피 투게더	05 희망릴레이 토크콘서트 청춘진단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20 MBC 뉴스24 45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재) 06:00 한국기행(재) 〈겨울 상종 별난 인생 4부 한평생 외길 인생〉 06:20 세계테마기행(재) 〈미지의 낙원, 카나리아 제도 라고메라〉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왕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의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베이컨 달걀빵과 팬케이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 〈특집국민 주치의 명의 10년을 기록하다〉	13:4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금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의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4	19:00 갤럭시 안전 프로젝트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천 가지 매력, 말레이시아 4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서, 말라카〉 21:30 한국기행 〈와서와라.봄 4부 봄은 맛있는〉 21:50 세계문화기행 〈문학의 길을 걷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쪽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채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일(음 2월 5일 戊子)	
 子	48년생 지나치다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60년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72년생 잡으려는 것은 안 잡히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만 들어오는 꼴이다. 84년생 매끄럽지 못하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0	 午	42년생 참신한 발상으로 변화를 꾀해 보자. 54년생 하는 일이 뜻하는 대로 잘 흘러나가게 된다. 66년생 선의를 악용하려는 이가 보인다. 78년생 결정적인 행군이 조성되는 마당이다. 90년생 망각한다면 실수로 이어진다. 행운의 숫자 : 02, 82
 丑	49년생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소망하는 바를 향해 매진한다면 이루어지겠다. 73년생 지나칠 뻔한 것 속에 귀중함이 있다. 85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자. 행운의 숫자 : 32, 09	 未	43년생 관계와 입장을 고려하자. 55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67년생 처음부터 잃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79년생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겠다. 91년생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 행운의 숫자 : 31, 89
 寅	50년생 길흉을 달리하는 기로에 서 있다 62년생 허심탄화하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리면서 불만이 해소되리라. 74년생 전전긍긍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음을 알라. 86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72, 41	 申	44년생 자신감 있게 표출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힘은 들겠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여긴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 68년생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80년생 시작은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희열로 가득 차리라. 행운의 숫자 : 07, 77
 卯	51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기민한 감각을 통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75년생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87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5, 11	 酉	45년생 희망 사탕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57년생 현재의 손익에만 얽매지 말고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69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81년생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2, 98
 辰	52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하자. 76년생 사소하다고 여겨 왔던 일의 비중이 커질 것이다. 88년생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08, 19	 戌	46년생 외향적인 판단은 핵심을 놓칠 수 있다. 58년생 연속적이 라면 중요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70년생 잔파 부리다가는 크게 실수할 수도 있도다. 82년생 시기상조이기도 하지만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8, 59
 巳	53년생 겸손하자. 65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77년생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결합돼 있으니 신중하라. 89년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94, 73	 亥	47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59년생 과감하게 진행해야 미련이 남지 않을 것이다. 71년생 바야흐로 기탄없이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83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포착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06, 26